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히비야 지역은 일본의 근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1883년 로쿠메이칸(鹿鳴館)이라 불리는 일본 최초 서양식 건물이 히비야에 세워졌고, 외국 무역상과 외교관들에게 인기 있는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쇼와 시대(1929~1989)에는 극장과 콘서트홀이 히비야에 세워졌고, 히비야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비야 공회당’이라고 불리는 첫 콘서트홀은 1929년에 완공되었으며, 당시 도쿄에서는 유일한 콘서트홀이었습니다. 1934년에는 유명한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과 히비야 영화관도 건설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라고 불리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복합형 상업 시설을 히비야 중심부에 오픈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서구화를 상징하는 로쿠메이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총 연면적은 19만 제곱미터이며, 지하 4층 지상 35층 건물에는 사무실과 60곳이 넘는 가게와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히비야 스탭 스퀘어라고 불리는 광장이 있어 많은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그중 하나인 히비야 페스티벌은 매년 황금연휴(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시기에 개최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히비야와 그 주변 지역에는 많은 극장과 영화관, 아트 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창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도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도호 그룹은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과 시어터 크리에(Theatre Creation) 등의 극장과 힘을 합쳐 세계적인 영화와 극장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합 시설 내에 개관한 TOHO 시네마즈 히비야는 13개의 스크린과 약 2,800석의 좌석을 자랑하는 도쿄 최대 규모의 영화관입니다.